

방치된 석조불교문화재 보존 '빨간불'

문체부·문화재청 건조문화재 전면점검 실시

정부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비롯한 건조물 문화재 6752건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의 불교 석조문화재가 10년 이상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 보수공사 이후에도 관리소홀 등의 문제로 훼손이 심각히 진행된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15년 이상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불교 석조문화재만 해도 277건. 이중 원주 법천사지에 있었으나 일제시대 일본 오사카로 몰래 밀반출됐다 반환돼 서울 종로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국보 101호)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광국사탑의 경우 1987년 보수 이후 2003년 조사에서도 훼손의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이전계획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 현재 탑은 부재 이완 등으로 기단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에 있는 장의사지 당간지주(보물 제235호)는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돼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석조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12년 5월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을 보면 전국에 산재한 국보·보물급 석조문화재 533건 가운데 102건(2012년 기준)은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적됐다. 이중 반구대 암각화, 경복궁 아미타 굴뚝 등 5건을 제외한 98건이 불교문화재였다. 국내 석탑 및 부도 등 국보급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임을 감안하면 석조문화재 훼손은 불교성보문화재의 손실로 직결되는 문제다.

당시 경북 고선사지삼층석탑(국보 38호), 강원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국보 59호), 강원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86호), 강원 진전사지 부도(보물 439호), 경북 경주석빙고(보물 60호) 등이 풍화상태나 부식 등으로 구조 안정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보수 및 정비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예산의 한계 등에 직면해 전면 보수·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수 예산조차 신청하지 않아 방치됐다. 문화재청도 예산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현장조사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화재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훼손이 심각한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탑(국보 101호, 사진 위)과 세검정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아있는 장의사지 당간지주(사진 아래)

깨지고, 시멘트 덧칠에, 이끼 패해 대부분 10여년전 보수... 훼손 우려

점검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또 보수공사가 진행됐더라도 복구과정에서 잘못된 보수로 인해 훼손이 더욱 심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다. 11월 26일 복원 착수식이 열린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이 대표적인 예다. 1970년대까지 복구 과정에서 시멘트 등을 덧바르던 관행으로 흔들스럽게 있던 석탑의 원형을 살리기 위해 1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또 경주박물관 내 고선사지삼층석탑과 같이 석조물에 기생하는 미생물인 지의류 번식으로 부재 자체가 약화된 경우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학계에서 석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관리·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문화재 보수는 목조문화재에 치중됐다. 가령 석탑의 경우 부재에 맞는 접착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노력이 부족하다. 다양한 돌로 만든 석조문화재를 복원할 전문가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 유적연구실장은 "전국의 폐사지 5000여 곳도 대부분 방치돼 있어 이곳에서 나온 석물 등이 묘지나 화장실의 석재로 사용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i.com

"조선 전기에도 가로형 불화가 존재했다"

군산 동국사 가로형 쌍림열반도, 조선 전기 불화 확인

조선 전기에도 가로형의 불화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11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동악미술학회(이사장 최유진) 제63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선전기 불화 중 가로형 석가열반도의 국내 유일본이자 최고본(最古本)"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알려진 조선전기 불화는 150여 점 중 동국사 쌍림열반도가 석보상절 석가팔상도(1447년)의 조선시대 수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조선 전기 불화의 복제법(배제법)을 확인 시켜준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동국사 종결 스님은 "승유역불의 조선 전기에도 훌륭한 불화 제작과 유통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치노헤 스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수하게 돼 새삼 한일불교교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 가로형 쌍림열반도는 동국사 주지 종결 스님이 일본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스님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에 환수됐으며 지난 7월 국내에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지난 7월 국내에 환수된 동국사 쌍림열반도.

"정치·종교 협력과 견제 유지해야"

조계종 종평위 '종교평화 정착 토론회'... 박광서 교수 기초발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명선거는 과연 가능할까? 종교가 권력화 되었고 정교분리 의식이 서구만큼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해 주권인식을 발휘한다면 종교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가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해 주권인식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12월 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종교차별 없는 공명선거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초발제했다. 박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진표 황우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발언을 예로 들어 정교분리 헌법조항을 강하게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교와 정치가 아합하거나 대립

할 때 사회는 불안해진다. 정치와 종교는 상호 협력과 견제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문제 없는 공명선거를 위해 박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예시집) 또는 선거법안내 설명회나 사이버선거 안내 시종교차별과 정교분리 위반 사례를 포함시킬 것 △후보자들이 종교단체 방문 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낼 경우 서면으로 주의 경고 주기, 엄중하면 고발 조치할 것 △종교지도자가 대중모임 혹은 공개적 자리에서 특정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데 대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제로 본 정교분리 헌법정신 위배' △황일근 서초구의원- '사랑의 교회 사례로 본 정교유착 문제' △임병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2014년 지방선거 종교중립 예방 대책' 등이 나섰다. 정혜수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원장 선거, 직선제 고려해야"

성낙인 교수, 중앙종회의원 연수서 주장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모든 승려가 참여하는 실질적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의 초청 강연에 이 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종헌·종법과 선거법 체계에 대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의원내각제의 수장인 국무총

리에 해당된다"며 "순수한 의원내각제라면 의회에 해당하는 종회의원만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나, 국가처럼 일률적인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구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간접선거로 치러진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적지 않은 교육자들이 현실

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성 교수는 "2000~4000명의 스님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전국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선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사태가 불거지자 원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유선재 총동문회 사무처장이 사퇴했지만 상황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불련 현역들은 사과가 아닌 변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대불련은 12월 2일 입장문에서 "총동문회 현 집행부의 소동 부재와 폐쇄성으로 발생한 결과"라며 "사과도 일방적 변명이며 본질 없는 사후처리는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의 대불련 동문들은 동문회 홈페이지에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 신종일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스님들 중복몰이 '논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스님들을 중복세력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원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은 11월29일 조계종 스님들의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성명은 대한불교

지기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희도)과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양춘동)가 함께 연서한 것으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스님들 '종북', '친북', '좌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스님들을 비난했다.

성명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의 대불련 동문들은 동문회 홈페이지에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 신종일 기자

"KTX 민영화 안돼"

조계종 노동위, 5일 반대 성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에 대해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12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KTX철도 민영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통신(KT), 석유공사, 국민은행, 발전 등이 민영화되고 기업 이익은 국가와 국민에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간자본과 외국 투기자본 등에 송두리째 가고 있다"면서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란 미명 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본에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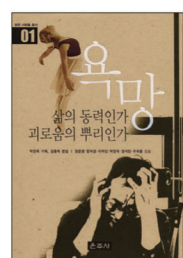
이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꾀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동안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기간 산업인 통신·석유·조선·발전·가스·중공업·은행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라며 "철도 미래백년을 위한 국민 합의의 기구를 만들어 철도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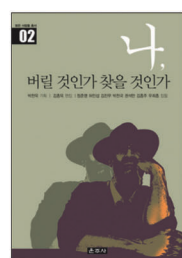
신종일 기자

맑은사람들 총서 |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민의
504쪽 |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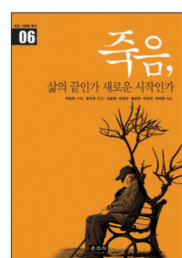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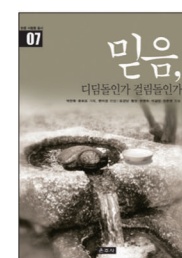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
300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일시: 12월 21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괴로움은 어디서 오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초기불교와 선불교, 기독교를 포함한 서양철학, 심리학과 진화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인간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괴로움(고통)의 문제에 대해 성찰!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26쪽/18,000원

